혁신기법 전수받아 유망강소기업 선정된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

- 영상감시 시스템 제조업체... 올해부터 포스코 혁신허브 QSS 활동 참여

포스코 혁신허브 QSS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온 포항지역의 중소기업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이 6월 17일 포항시와 포항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16년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



▲포스코 혁신허브 QSS활동에 참여해온 포항지역의 중소기업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이 2016년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 6월 1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지정서 수여식에 참여한 송철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 대표(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은 산업용 CCTV 시스템을 전문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4년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포스코의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혁신허브 QSS활동에 참여해 포스코의 혁신기법을 전수받고, 포스코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진행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송철 오토데이타인터내셔널 대표는 6월 1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여해 "포스코의 혁신허브 QSS활동에 참여하면서 5S 등을 전수받아 작업환경과 방법이 매우 개선되었고, 제품 품질과 능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혁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포스코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2016년 15개의 유망강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매년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정임 커뮤니케이터